

### 학교 밖에서

배움의 後園

임효경  
전 완도중 교장



아~ 쉽지 않구나. 39년간 습관이 무섭구나. 내 몸은 학교 밖에 있지만 내 귀와 내 마음이 학교 일정을 따라잡아 움직일 때가 있다. 학교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방학이기 때문인 것 같다. 아주 긴 유급 방학. 심지어 가끔 학교에 간다. 꿈속에서. 교실 복도 2층, 3층을 오가며, 이것 저것 살피고 선생님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거리를 해결하려 오만가지 생각으로 인상을 쓰고 있다가, 깬다. 그대로 멍하게 전장을 바라보다가 허전함에 몸서리를 친다.

가장 자주 마음이 쓰이는 것은 아침 8시에 있다. 아이들은 등교하겠다. 5일이나 되는 추석 한가위 긴 휴일 동안, 맘껏 먹고 마시고, 친지들과 한가한 시간을 보낸 후 학교를 가야하는 아침에 아이들은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까? 그래서 머리는 빗지 않고,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교복 걸치고 가방 들쳐 메고 오는 길에 잠이 덜 깬 아이들. 그 아이들 교문 맞이는 누가 해 주고 있을까? 부러 큰 소리로 따뜻하게 '어서 와, 좋은 하루 보내. 파이팅!'을 외쳐주는 사람 없겠지?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점심시간 운동장 광경이다. 어느 학교의 두 배가 넘는 넓은 운동장에서 새롭게 단장하여 더 부드럽고 안전해 진 인조잔디 위는 얼마나 활기로 넘칠까? 이번 달 9월 말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학교 대표로 축구 시합에 나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기개가 높아졌을까? 학교에 남학생이 있다면 축구팀은 어느 학교에나 다 있기 때문에, 축구는 가장 인기 종목이고 우승하기에 가장 힘든 종목이다. 학교 대표가 된다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영광이 된다. 아마, 오늘도 3학년 중심, 2학년 에이스 두 명 정도 끼어있는 축구 대표팀은 4교시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커멓게 탄 얼굴과 팔 다리 휘저어가며 운동장으로 뛰어가고 있을 것이다. 배 부르면 뛰기 어려우니까 점심은 마지막에 먹는 것을 최근

에 알았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개학 후 첫 수요일 오후, 승진하여 부임하는 교장선생님을 환영하는 친목회는 화기에 애하겠지? 2년 전 나를 위해, 완.도.중. 3행시를 지어 주었던 그 날이 새삼 떠오르며, 그림다. 완벽하고 도도한, 중심이 되어 줄 교장선생님이라나.^^ 그러한 위트에 깜짝 놀라왔던 것은 그 친목회 간사가 신규 1년차 체육과 선생님이었기 때문이다. 막내가 이끄는 친목회는 늘 미소를 짓게 했었다.

생각해 보면 식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바쁘고 힘들다고 서로 모이지 않으면, 더 멀어지고 더 소원해지면서, 우리의 삶은 지쳐가지 않을까? 작년 스승의 날 모든 학교 교직원이 함께 모여 한 마음 체육대회를 했던 것은 참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5~6명이 한 팀이 되어 7개의 체육활동 지점에서 주어진 활동을 완수하고 마지막에 단체 줄넘기 20번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탁구공을 탁구채로 치며 10미터 달리기, 동전 뒤집기, 링 던지기, 신발 던지기, 간지 불링, 컵 쌓기, 손대지 않고 고무줄 바지 입기. 각 팀의 한 사람씩 한 임무를 맡아 그 활동을 수행하면 남은 팀원들이 응원을 한다. 모든 임무를 수행하여 가장 빠르게 완성을 외치면 우승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게임은 무조건 이기고 본다는 생존의 법칙을 습득한 자들의 난투극 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또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맨 마지막 활동에서 손안대고 고무줄바지 입기에서 평소에 깔꿈을 자랑하던 교무부장이 체육관 바닥에 온 몸을 누이고 비벼대며 입으로 고무줄바지 입구를 물고, 한 발 한 발 집어넣으려 애쓰는 모습은 야수의 몸부림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상품은 티슈박스였다. 상품은 극비밀이었고, 포장을 금색으로 하여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 1,2,3,등 크기가 대,중, 소였다. 선생님들이 힐끗힐끗 상품에 눈독들이며, 저것을 우리가 타야한다고 승부의식을 불태웠다.^^ 결국 우승의 감격을 맛본 후, 서로 한 박스씩 나눠 가지며 모두 승리와 마음을 나누었던 그날

이 참 그림다. 아~,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새 학교의 일상을 전해 주었다. 본인이 교문맞이를 하고 있고, 학생부장과 학생자치회가 함께하고 있다한다. 새 교장선생님은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래, 취임식에서 학생들과 축구를 함께 하겠다고 하여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단다. 첫 번째 수요일 동아리활동 시간에 학생들과 그 넓은 운동장을 이리저리 뛰었다. 난리가 났다한다. 친목회 간사는 또 깜짝 놀랄 이벤트로 모든 교직원이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참 다행이다.

무던하기 그지없는 나. 아직 나의 마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를 차츰 차츰 밀어내고, 이제 학교 밖의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려고 한다. 아침 눈을 뜨면, 남편과 손잡고 나가, 아침 운동 겸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평일에 집 근처 무등산 자락 골짜기가 내주는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맘껏 누릴 수 있다니 참 꿈만 같다. 그동안 혼자서 아침 식사를 그러저럭 하였던 우리 부부가 이제 성인병 예방을 위해 손이 좀 가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다니 참 신기하다. 마주보고 있자니, 식당밥과 손쉽고 빠른 음식에 익숙해진 남편이 안쓰러워 보인다.

휴일 후 마지막 날 저녁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지라, 짐을 싸고 풀고, 늘 마음이 조급하고 바빴는데, 지인들과 한담을 나눌 수 있으니,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일요일 점심에 친한 동생의 생일 식사 자리에 초대 받았다. 이전에는 정중하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초대에 응하지 못함을 전해야 했다. 나는 여유롭게 나주 남평 드들강 가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월남쌈을 처음 맛보았다. 창가에 앉아 길게 드러누운 강줄기를 담은 늦여름의 초록빛 자연 광경을 맘껏 누렸다. 또 근처 들이 아름답고 한옥지붕이 멋스러운 미술관 겸 커피숍에서 빙수를 나눠 먹으며, 나른한 오후 시간을 웃음으로 채웠다. 참 행복했다.

학교 밖에 있는 나, 좀 낯설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그대에게 보내준다는 음악을 들으며 글을 쓰고 있다. 새로운 시작이다.

### 더불어 함께 릴레이 캠페인



인기 드라마 '굿파트너'의 작가 최유나와 배우 장나라가 최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이렇듯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참여하면 더욱 관심을 받는 릴레이 캠페인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명예 치안감 최불암 씨가 제1호 주자로 나선 'NO EXIT' (출구 없음) 마약 근절 캠페인을 비롯해 불법 촬영·딤패이크·스토킹 릴레이 예방 캠페인,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릴레이 캠페인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릴레이(Relay)란 육상 계주에서 앞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바톤(막대기)을 전달하며 달리는 경기를 말한다. 그래서 릴레이 캠페인은 공익적인 활동에 본인이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는 행동이다.

과연 우리가 기억하는 성공적인 릴레이 캠페인은 무엇일까.

'아이스버킷챌린지' 기부캠페인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이 캠페인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루게릭병) 환자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참여자가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모습과 다음 도전자 세 명을 지목하는 동영상 SNS에 올려 계속해서 기부를 이어가

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 여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각종 소셜 미디어와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의 참여로 급격히 퍼져나가 세계적으로 하나의 유행이 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승일희망재단에서 국내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착공하면서 유명 연예인과 함께 아이스버킷 챌린지 부활을 알린 상태다.

또 최근에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이 기부에 재미와 즐거움을 더하는 퍼네이션(funation)이 대중화되고 있다. 그 예로 1미터 1원 자선 걷기, 플로킹, 6K 러닝 for water. 모바일 앱을 통한 걸음 기부 등 걷기 챌린지가 활발하다.

광주·전남 혈액원에서 광주시, 전남일보, CMB광주방송과 함께 지난 8월13일부터 9월12일까지 '31일간의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 결과 51개 단체와 6개 헌혈의 집에서 1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헌혈에 참여해 하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와 같이 릴레이 캠페인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대와 참여를 확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분명하다.

재난, 빈곤, 질병, 인권, 사회, 환경, 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퍼네이션을 가미한 릴레이 캠페인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 과거·미래가 융합하는 '충장축제'

기고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매년 10월이면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충장축제가 개최된다. 20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충장축제는 광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2004년 첫 선을 보였다. 본래 충장로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소규모 마을 축제로 시작되었다. 이후 범위와 내용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4년 제21회를 맞이하여 지역 축제를 뛰어넘어 전국적, 나아가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동구청장 재임(2012~2015년)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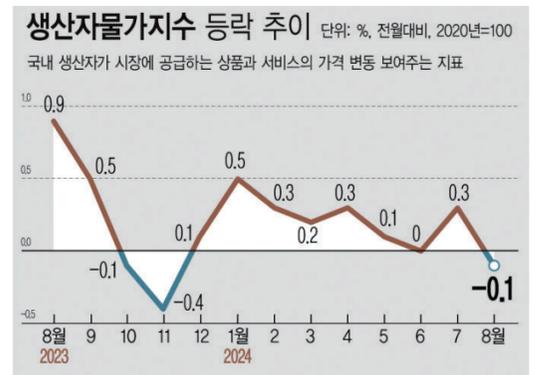
던 시절 충장축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다. 2011년 우수축제 선정을 비롯해 2014·2015년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그 이후 거리축제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약간의 관심 부족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면서 축제의 위상과 규모는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 다행히 현 임택 청장의 노력으로 최근 몇 년간 축제는 다시금 성장세로 돌아섰다. 2022년부터는 '뉴트로 감성'이라는 주제로 과거의 추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충장축제가 향후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면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융합', '미래', '글로벌'이다. 충장축제가

진정한 지역사회의 축제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선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장르 간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을 이뤄야 한다. 충장축제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때문에 과거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해야 한다. 융합을 통해 젊은 세대는 과거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년층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 저절로 상호 보완이 이뤄지는 장이 축제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융합은 충장축제가 다른 지역 축제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충장축제가 이 시대 놓치지 않아야 할 컨셉은 '미래지향성'이다. 단순히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고민과 구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적, 문화적, 기술적 발전이 필수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적이다. 특히 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 기술을 축제에 도입하면 미래 지향적 축제의 면모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이들이 더 쉽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은 AI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AI×문화중심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AI와 문화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 슬로건이 현실에서 극명하게 실천되고 드러날 수 있는 분야가 '축제'다. 그러니 충장축제는 이제부터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다.

또한 충장축제가 갖춰야 할 또 다른 미션은 '글로벌'이다. 여기에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축제는 구호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만족해선 안 된다. 외래문화를 수용하며 지역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 관람객이 축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과 글로벌 교류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월드컵 버스킹' 대회는 그같은 전략 차원에서 매우 반가운 행사다. 또한,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관리와 외부 지원 확보 역시 중요하다. 예산 문제는 축제의 규모와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와 대한민국 축제에서 이전 아시아까지 아우르는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할 때다. 광주의 상징적인 거리, 충장로에서 광주 정신을 보듬어 내는 동시에 아시아 문화를 품을 시점이 되었다. 지역적 특수성을 쟁기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까지 동시에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충장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부상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 '융합' '미래' '글로벌'이 그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다.